

보도시점 2025. 4. 17.(목) 08:00 배포 2025. 4. 17.(목) 08:00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2025~2029)’ 수립 방향 논의

- 4. 17.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일곱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 개최
- 국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예술단체 육성,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국악 해외 진출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전통공연창작마루 강의실에서 일곱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국악 진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전통예술인, 국립예술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2025~2029)’의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3. 6.~4. 24. 매주 목요일(변동 가능),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정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먼저 문체부가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추진 배경과 전반적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이 기관별 국악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국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예술단체 육성, 악기·악보·공연장 개발 연구,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국악 해외 진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김상연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와 서인화 서울시 무형유산위원회 부위원장, 성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이정필 전(前)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임웅수 대한민국의악인협회 이사장, 정다샘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악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국악진흥기본계획(2025~2029)’은 작년 「국악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악은 한국의 고유한 음악으로서 높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도 융합할 수 있는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는

대표 문화예술 원천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활력소로 국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김진희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044-203-2734)

